

靑銅器時代의 農耕과 社會

尹昊弼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목 차>

- | | |
|--|---|
| <p>I. 머리말</p> <p>II. 농경의 개념과 이론적 틀</p> <p>1. 농경의 개념과 관련용어</p> <p>2. 농경전이의 이론적 틀</p> <p>3. 집약적 농경</p> | <p>III. 농경으로 본 청동기시대의 사회양상</p> <p>1. 청동기시대 전기와 후기의 농경양상</p> <p>2. 농경으로 본 청동기시대의 사회양상</p> <p>IV. 맺음말</p> |
|--|---|

I. 머리말

이 글은 ‘농경(農耕)’을 통해 한국 청동기시대의 사회상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것이다. ‘사회(society)’는 학문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그 개념이 정의되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생물학적 재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시적인 이해관계나 집단이 아니라 상호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지는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그 영역은 가족 같은 소규모의 집단에서부터 다수의 언어와 인종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집단까지 다양하며, 또한 지속적 상호관계를 통한 경제적, 문화적 영역까지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청동기시대의 사회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취락의 구조, 생산과 유통, 의례 및 제사, 사회구조, 사회발전단계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¹⁾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대상 역시 주거지나 무덤, 토기, 석기, 위세품(청동기, 옥) 등이 중심이 된다. 이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다양화

1) 청동기시대 사회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김권구(2005:26~45)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다.

되었지만 이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연구대상에 있어서는 아직 제한된 부분이 많다. 지금까지의 주된 연구대상이 생활유구, 무덤유구, 수공업 생산품이었다면, 앞으로는 생계경제 양상 등을 통한 좀 더 다양화된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최근 경작유구의 조사예가 증가하면서 생계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논과 밭의 구조나 형식 연구, 입지 및 토양분석, 식물유체 분석을 통한 생계환경연구, 농경구를 통한 농경기술 연구, 농경개념 및 이론 고찰, 논과 밭의 조사방법 소개 등 주로 생계경제활동의 대상에 대한 개별적 연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청동기시대의 사회발전단계나 사회구조와 같은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생계경제 중에서 농경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의 사회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²⁾ 연구는 곡물생산 유구(논과 밭)의 형식이나 구조분석, 식물유체 분석 등과 같은 유구, 유물 중심의 분석보다는 농경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인 틀을 통해 청동기시대 농경사회의 변화양상을 시기별로 검토하여 청동기시대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살펴보고자 한다.³⁾

II. 농경의 개념과 이론적 틀

1. 농경의 개념과 관련용어

‘農耕’의 사전적 의미는 ‘논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일’을 말한다(김응모 2006:52). 여기에서 ‘농사짓는 일’이란 작물을 심고 가꾸고(관리) 수확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즉 농경은 논농사와 밭농사를 통틀어 가리키는 것으로 주로 식량생산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농경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용어들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농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농경 기원과 전이에 따른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 생각된다. 따라서 먼저 농경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검토하고, 그 외의 관련용어들을

2) 청동기시대의 생계경제 양상은 수렵·채집, 어로, 농경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농경은 이미 신석기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확산되어, 생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게 된다. 즉, 청동기시대 사회는 농경을 중심으로 한 ‘성숙된 농경사회’로 변화하게 되며,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농경에 대한 이론적인 틀은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원문이나 보고서가 아닌 이차적 문헌을 재인용한 것이 많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원전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모두 필자의 잘못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살펴보고자 한다.⁴⁾

현재 고고학에서 사용되는 농경관련 개념과 용어들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 작물에 관한 것이고, 둘째가 작물생산 활동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수렵·채집 경제로부터 농경으로의 전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고고학적, 고민족식물학적 증거를 통해 그 개념과 용어들이 검토·정리되어 왔다. 이는 농경의 발생이라는 기원적인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개념의 틀은 비슷하지만 농경기원에 관한 각각의 이론마다 그 개념과 용어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이론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정리되는 과정에서 같은 용어라도 그 개념을 검토하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작물과 관련된 용어로는 작물(作物), 재배종(栽培種), 경작종(耕作種), 작물화(作物化), 순화(馴化), 재배종화(栽培種化)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들은 모두 비슷한 개념으로 야생식물이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전적 형질과 형태가 변화한 식물이나 그 과정을 말한다(이경아 1998:63, 이준정 2001:3). 즉, 작물, 재배종, 경작종은 야생으로부터 변형된 식물을 말하며, 작물화, 순화, 재배종화는 그 과정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렇게 비슷한 개념을 가진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은 농경과 관련된 개념들이 외국에서 검토되고 정리된 것이 많아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용어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⁵⁾ 둘째로 작물생산 활동과 관련된 용어는 경작(耕作), 재배(栽培), 경종(耕種), 원경(園耕), 텃밭재배(埜田栽培), 농경(農耕), 농사(農事), 농업(農業) 등이 있다. 경작(cultivation), 재배(cultivation), 경종(agronomy)은 같은 의미로서 유전학적

4) 농경에 대한 개념 및 이와 관련된 생물학적, 문화적, 생계경제적 용어들은 이경아(1998, 2005), 안승모(1999, 2005), 이준정(2001), 신숙정(2001)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외국의 농경관련 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개념적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기 보다는 소개된 용어와 개념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5) 외국용어를 적용할 때 개념과 의미가 정확하게 맞는 우리말이 없거나 여러 개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말이 없는 경우는 새롭게 용어를 만들거나 우리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의 용어를 차용하는 것이 많다. 또한 우리말에 같은 개념을 가진 용어가 여러 개일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례로 ‘domestication’에 관해 고민족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作物化’로 번역하였고(이경아 1998), 고고학적 입장에서 ‘馴化’(안승모 1999), ‘栽培種化’(이준정 2001)라고 번역하였다. 이들이 번역한 개념들을 살펴보면, ‘작물화’는 장기간에 걸친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식물의 생존과 재생산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의존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며, ‘순화’와 ‘재배종화’는 야생의 식물이 인간의 개입에 의해 유전적 형질과 외형적 형태에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종으로 변모하는 생물학적 과정을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domestication’에 관해 기본적인 개념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개념에 맞는 적절한 용어선택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변화 유무와 관계없이 식물의 성장환경을 조작하는 행위(경지정리, 파종, 잡초제거, 수확, 저장 등)를 포괄하는 경제적·문화적 행위로 사용된다(이경아 1998:63~64, 이준정 2001:4, 채제천 2006:18). 또한 재배대상 식물이 야생식물이든 재배종이든 관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물화, 순화, 재배종화와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개념은 생산활동의 행위가 주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경과 텃밭재배(horticulture, small scale gardening)는 생산활동의 규모를 말하는 것으로 모두 소규모의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농경을 일컫는다. 농경에 비해 그 생산물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으며, 관개시설이나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긴 휴경기를 필요로 하며, ‘화전경작’이 이에 속할 수 있다(이경아 1998:64).⁶⁾

농경(agriculture), 농사, 농업은 작물생산 활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며, 이중 ‘농업’이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농업’의 사전적 의미는 의식주에 소용되는 여러 가지 물질을 얻기 위해 토지를 이용하여 유용한 동식물을 육성해 나가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김응모 2006:23), 식물 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농사’는 논밭을 갈아 농작물(農作物)을 심어 가꾸고 거두어들이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농경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작물생산 활동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농업보다는 농사와 농경의 개념이 더 정확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농사와 농경은 같은 의미이지만 개념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농사’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역사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용어의 역사성과 현대적인 개념이 강하다.⁷⁾ 이에 반해 ‘농경’은 ‘농사’와 같이 역사성은 가지고 있으나 대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못한 편이며, 주로 초기단계의 작물생산 활동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선사시대의 작물생산 활동에 적합한 용어는 역사시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농사’와 구별되는 ‘농경’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⁸⁾

2. 농경전이의 이론적 틀

6) 원경과 텃밭재배 형태는 규모와 경작형태로 보아 한국 청동기시대 전기의 경작양상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7) ‘농사’와 ‘농경’에 관련된 용어를 농업어휘 사전인 ‘한국어 농업어휘 낱말밭’(김응모 2006)에서 살펴보면, ‘농경’에 비해 ‘농사’에 관련된 용어가 훨씬 많이 파생되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사’라는 용어가 일반 대중이나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농경’은 그 파생정도가 매우 미약하다.

8) ‘농경’의 영어표기는 ‘agriculture’로 ‘농업’의 영어표기와 같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대상에 따라 적절히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대적 개념을 적용할 때 ‘농경’은 선사시대의 용어로, ‘농사’는 역사시대의 용어로 정리하고자 한다.

농경의 기원이나 농경으로의 전이 문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그 개념이나 발생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移住說’⁹⁾과 ‘人口壓說’¹⁰⁾을 중심으로 농경기원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이론적인 논의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수렵·채집단계(자원획득 단계)에서 집약적 농경단계(자원생산 단계)로 전이되는 양상은 단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변화선상에 위치하면서 상호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며(이경아 1998:63~65, 2005:70~72; 이준정 2001:4~5),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농경전이를 하나의 이론적 틀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시대적·지역적 상황에 따라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농경전이이 일어나는 해당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제는 청동기시대 농경이므로 농경의 기원이나 전이 과정에 대한 논의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개하는 수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¹¹⁾ 농경전이에 대한 이론적 틀은 대부분 전이과정의 주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많은데, 이중 주된 이론과 이에 대한 비판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론	내용	비판
농경우위설	- 농경이 수렵·채집 경제보다 훨씬 우월한 생계경제 수단이라는 시각으로 문화진화론적 입장에서 바라 봄. 이는 어느 사회든 농경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연환경이 농경에 적합하면 자발적으로 수렵·채집 집단이 농경을 시작하는 것으로 봄. - ‘自然棲息處說’	- 생계경제 수단의 방식이나 환경보다는 이를 사용하는 집단에 따라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 → 농경만이 가장 좋은 생계경제 양식이 아닐 수 있음.
자	- 자연환경 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인구와 자	- 최근 축적된 고환경자료, 고고학

9) 농경기원에 관한 학설로는 중국대륙으로부터 농경민이 이주하여 한반도에 농경이 전파되었다는 ‘移住說’에 근거한 논저들이 가장 많으나 이를 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예는 미비한 편이다(김원용 1964; 김정배 1973·1997; 김정학 1983; 심봉근 1982·1991; 안재호 2000; 조현중 2000).

10) 인구압설은 ‘이주설’과 달리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농경기원을 설명한 것으로 주목된다 (Choe Chong Pil 1982·1990; Norton 1996).

11) 농경전이에 대한 부분은 농경의 발생과 집약적 농경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논란은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시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의 집약적 농경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청동기시대의 집약적 농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경의 전이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이론적 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아직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이행되는 단계나 청동기시대 전기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틀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농경전이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스텐하우트(1986), 이경아(1998, 2005), 이준정(2001), 안승모(2005)의 논문을 참고하여 정리하고자 하며, 개별이론에 대한 주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개인용된 논문을 기재한다.

원부족설	원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수렵·채집인들이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 위해 식량 획득을 위한 노동 강도와 시간을 늘여나가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가장 노동 집약적인 식량 생산 체계인 농경에 이르게 됨. - ‘오아시스說’, ‘人口壓모델’, ‘周邊部說’, ‘波狀的 傳播說’	자료, 민족지자료를 볼 때 농경의 시작전후에 식량자원의 부족을 야기할 기후변화나 인구의 변화가 극히 미비. 또한, 자원의 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방식이 집단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짐.
사회적요인설	- 농경의 발생 원인을 수렵·채집인들이 잉여생산물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욕구로 봄. 즉, 농경으로의 전이과정을 사회구조의 변화나 사회적 불평등의 등장으로 보고, 농경을 통한 부의 축적을 개인 또는 집단간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하려는 것으로 이해. 그 증거로 위신제 역할을 하는 재배식물을 제시함.	- 전 세계적으로 초기 재배종은 주식거리였고, 농경으로의 전이가 일어날 무렵에는 사회 경제적인 경쟁이 심화될 정도로 사회복합성 (social complexity)이 증가된 사회는 거의 없음.
이데올로기변화설	- 농경을 하나의 문화적, 상징적 구조로 간주하고 농경전이의 원인을 이념적인 측면으로 고찰함. 즉, 수렵·채집 사회의 세계관과 이념적인 측면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것이 물질문화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 결과 중의 하나로 농경의 발생을 이해함.	- 이러한 학설은 관념적 측면이 많아 고고학 자료를 통해 실제 연구에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계를 지님. 또한, 새로운 사고체계와 농경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며, 주민들이 농경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았음.

〈표 1〉 농경전이의 이론적 틀(이준정 2001)

3. 집약적 농경

농경에 대한 고고학적 개념은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배식물에 의존하는 생산경제 체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격화된 생산경제 체계를 말한다(이준정 2001:4). 이는 식량에 대한 안정적 수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제적·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의 변화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민족식물학에서 보는 ‘농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 첫째, 비료 및 인력 외의 동력을 사용하고 관개시설을 갖춘 에너지, 노동 집약적 생산체계를 지칭한다. 둘째, 에너지의 집약성 보다는 “경작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셋째, ‘불가역성(不可逆性)’을 기준으로 하여, 경작에서 비롯된 삼림제거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이전의 순수 수렵·채집경제로 돌아갈 수 없는 단계로 본다. 넷째, 집중적 노동력을 요구하는 재배종의 경작이나 목축을 말한다. 다섯째, 농산물이 식생활에 차지하는 비율을 농경의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농산물이 식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12) 여러 학자에 의해 정의된 농경의 특징은 이경아에 의해 잘 정리되었으며(이경아 1998:64, 2005:70), 본고에서는 이를 재인용하였다

농경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개념들을 말해 주는 것으로 한 두 기준만으로는 농경을 정의하기란 어려울 뿐 아니라 고고학적인 맥락에서 보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농경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집약적 농경은 경작 방법의 변화를 통하여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을 가리키는데,¹³⁾ 이경아가 제시한 집약적 농경의 정의와 그에 따른 고고학적 증거양상이 주목된다(이경아 2005:71).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집약적 농경의 특징	고고학적 증거양상
- 재배종 또는 주자원으로 간주되는 야생종의 관리 및 농경시설의 유지가 생계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태.	- 개인적 차원 이상의 집단적 노동력 동원과 꾸준한 관리가 요구되는 농경시설 확인. - 대규모 밭, 논과 수리 시설, 동식물유체를 통한 계절성 입증.
- 집단 내 적어도 일부의 성원은 이와 같은 농경활동을 전직으로 함.	- 동식물유체 분석을 통한 농경활동 확인.
- 집약적 농경으로의 전환은 자원의 계절적 시간관리,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선호되는 입지조건을 변화할 수반하고 결국 집단의 정체성과 상징체계까지 본질적으로 변화시킴.	- 유적의 입지 환경분석을 통한 경관과 지리적 조건의 변화. - 농경의례의 증거 등을 통해 농경사회로의 전환으로 바뀐 세계관과 상징체계를 파악.

〈표 2〉 집약적 농경의 특징 및 고고학적 증거양상(이경아 2005)

〈표 2〉는 집약적 농경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재배종을 키우거나 야생종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생계경제의 중심으로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집중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상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농경활동과 함께 사회발전단계나 사회구조, 정신세계 등 사회상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서구에서 집약적 농경과 사회구조를 특성화하는 다양한 해석들은 주로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다. 집약농경과 사회조직의 발전은 초기국가의 성립이나 지역공동체의 노동력 증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Janusek and Kolata 2004:404~430). 위의 관점들은 누가, 그리고 어떠한 자원들이 농경 자본(landesque capital)을 구축하거나 조직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된다(Chambers 1980, Scarborough 1991). ‘하향식(top-down)’ 개념은 엘리트들에 의해 농경활동과 잉여생산물이 통제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엘리트들은 농경 자본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시키

13) ‘集約化’는 고정된 기간에 고정된 토지에서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반대로 농지의 팽창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粗放化’라 한다(키스 윌킨스·크리스 스티븐스(안승모·안덕임역) 2007:201~202).

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거나 생산물의 재분배를 이용한다. ‘상향식(bottom-up)’ 개념은 엘리트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구성원들이 지역적으로 조직화하고 개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Wilk 1983, 1988).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농경 집약화나 사회구조를 설명하기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 비판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서 상호 배타적 개념의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관점 대신 이를 절충하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Janusek and Kolata 2004:404~430).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관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잉여생산물의 관리와 통제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회 조직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자급자족하는 개별 가구의 잉여생산물은 소규모의 교환 정도는 허용되나 사회 전체로 보면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잉여생산물이 엘리트에 의해 관리되면, 이를 이용하여 토지와 노동력을 확보하고 기념물과 건축물을 축조·수리하고, 위세품 구입과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키스 윌킨스·크리스 스티븐스(안승모·안덕임 역) 2007:202~203)

Ⅲ. 농경으로 본 청동기시대의 사회양상

1. 청동기시대 전기와 후기의 농경양상

청동기시대는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획기는 송국리형 문화를 기준으로 한다.¹⁴⁾ 일반적으로 송국리형 문화의 등장으로 취락, 농경, 무덤 등 사회 전반적으로 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과정을 농경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대상은 논과 밭을 중심으로 하고 일부 식물유체, 농공구, 수공업 생산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논밭과 관련된 자료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검토되었고,¹⁵⁾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 선사유적 출토 곡물자료 집성’을 발간하여 유구 뿐만 아니라 식물유체에 대한 자료가 정리된 바 있

14)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은 본고에서는 송국리형 문화 단계를 기준으로 2시기로 구분한다. 따라서 선행하는 단계를 전기(미사리형, 가락동형, 혼암리형 문화단계)로 설정하고, 송국리형 문화 단계를 후기로 설정하였다(한국청동기학회 2007).

15) 광종철(2001), 李相吉(2002a·2002b), 신숙정(2002), 광종철·이진주(2003), 金炳燮(2003), 윤호필·고민정(2006), 김도현(2006).

다.16) 따라서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청동기시대 전기와 후기의 농경 특징 및 유구를 통한 사회적 맥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 기	후 기
논	지형적 입지	구룡사면 말단부 개석곡저, 범람원의 배후습지	구룡사면 말단부 개석곡저, 곡간 평야, 중소하천 범람원 배후습지
	유구형태	계단식, 소구획·부정형	계단식, 소구획·부정형
	농경지 규모	소규모	소규모, 중·대규모(?)
	농경기술	수로시설	수로시설의 다양화
	생산량	자급자족(추정)	자급자족 및 잉여물 생산(추정)
	주요 유적	울산 야음동유적, 밀양 금천리 유적	울산 옥현유적, 논산 마전리유적, 부여 구봉리유적 보령 관창리유적
밭	지형적 입지	구룡정상부, 충적지	충적지, 구룡정상부, 개석곡저
	배치형태	주거지와 인접배치	주거지와 인접해 배치하거나 별도의 공간에 경작지 조성
	농경지 규모	소규모 텃밭, 화전경작	대규모 경작지
	생산량	자급자족(?)	자급자족 및 잉여물 생산
	출토곡물	쌀, 조, 기장, 수수, 보리, 밀, 콩, 팥 등	쌀, 조, 기장, 수수, 보리, 밀, 피, 귀리, 콩, 팥 등
	주요 유적	밀양 금천리유적(추정), 청도 송읍리유적	진주 대평리유적, 진주 평거동유적, 밀양 살내유적, 진안 여의곡유적, 마산 진동유적

<표 3> 청동기시대 전기와 후기의 농경 특징

		전 기	후 기
취락	규모	소형 > 중·대형	중·대형 > 소형
	입지	충적지, 구룡사면, 정상부	충적지, 구룡사면, 정상부
	환호	일부 설치(?)	집중적으로 설치, 이중환호
	저장 시설	주거지 내부에 위치	주거지 외부에 위치 (고상가옥 및 저장수혈)
주거지	규모	대형	소형·중형
	형태	세장방형, 장방형	(장)방형, (타)원형

16) 2006년에 발간된 ‘한국 선사유적 출토 곡물자료 집성’을 기준으로 청동기시대 농경관련 유적은 71개소에 199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현재는 더 많은 수가 추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국립중앙박물관, 『한국 선사유적 출토 곡물자료 집성』(2006)).

	밧 구조		
	저장 시설	내부에 저장공 설치. 대형호에 보관	내부에 대형호에 보관
무덤	지석묘	독립적 배치나 소규모 군집	집중적으로 조성. 군집의 규모가 커지고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남(열상배치, 연결배치) 대형의 지석묘 등장(묘역지석묘). 해안지역이나 해안과 연결된 하천변에 주로 설치.
	석관묘	독립적 배치나 소규모 군집	집중적으로 조성. 지석묘와 인접해서 설치되거나 별도의 공간에 군집을 이루어 조성. 위세품(청동기, 옥, 마제석검 등) 부장.
의례(제사) 활동	적극적인 의례활동 양상이 보이지 않음(장송의례를 중심으로 일부 확인).	의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장송의례, 농경의례, 생활의례 등)	
생산과 유통	수공업 생산품을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짐.	위세품(수공업 생산품 및 잉여 곡물)을 중심으로 활발한 생산과 유통체계 성립.	
경작도구	발달미비. 단순함	경작도구 발달. 다양화	

<표 4> 청동기시대 전기와 후기의 유구 특징

농경은 생계경제 활동으로 인간생존에 가장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어떤 유구나 유물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불평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무덤이나 위세품은 권위나 권력을 나타내는 표상이지만 식량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농경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안승모 2005:5), 청동기시대에는 보다 성숙된 농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석기시대 경작유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출토된 식물유체는 많은 편이다. 이중 벼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이 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안승모 1999). 청동기시대로 들어서면서 논경작의 빈도가 높아지고 밭작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진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논은 주로 구릉사면 말단부 개석곡저나 범람원의 배후습지에 입지하고 계단식과 소구획 형태로 경작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계시설인 수로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농경작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입지와 규모, 그리고 주변에서 확인된 취락의 규모로 보아 자급자족의 형태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기로 들어서면서 농경지는 빠르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전기의 확대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이다. 이러한 연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송국리형 문화의 전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논외의 입지형태도 전기보다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관계시설도 다양화 한다.¹⁷⁾(이한상 2006, 김도현 2006) 농경지의 확대에 의해 자급자족의 식량생산 체계

17) 관계시설이 확인된 유적은 密陽 琴川里遺蹟, 蔚山 玉峴遺蹟, 蔚山 鉢里遺蹟, 蔚州 南川遺蹟, 大邱 東

를 넘어서 잉여곡물을 생산하게 된다. 농경전이 과정은 아니지만 이를 앞서 살펴본 이론적 틀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요인설’이나 ‘이데올로기 변화설’에 근접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청동기시대 전기를 거치면서 농경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송국리형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로 인해 논경작에 대한 정신적 변화나 사회적 욕구가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동기시대의 농경은 기본적으로 논경작 보다는 밭경작이 주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환경적 요인이나 인구압에 의해 논경작을 확대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럴 경우 오히려 밭농사를 확대하여 충당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밭경작은 논경작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주거지 주변에 배치되면서 소규모 텃밭이나 화전경작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⁸⁾ 물론 일부는 일정범위 이상의 밭경작을 하였을 것이다. 밭유구의 특성상 유물의 출토예가 적고 출토된 유물 또한 정확한 위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논과 같이 식물유체를 통한 절대연대 분석이나 같은 문화층에 분포하는 주거지의 시기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재배작물은 쌀, 조, 기장, 수수, 보리, 밀, 콩, 팥 등 모두 8종류이다.¹⁹⁾ 전기의 밭은 농경지의 규모가 작거나 화전경작의 형태이기 때문에 주로 자급자족이 주를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급자족의 생계경제 형태라도 모든 식량을 밭에서 해결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일부는 수렵·채집, 어로를 통해 충당하였을 것이다.

청동기시대 후기가 되면 밭은 농경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활발한 활동을 하게

川洞遺蹟, 論山 麻田里遺蹟, 夫餘 九鳳里遺蹟, 夫餘 松鶴里遺蹟, 保寧 寬倉里遺蹟, 安東 苧田里遺蹟, 馬山 鎭洞遺蹟, 마산 망곡리유적 등이 있다. 安東 苧田里遺蹟(이한상 2006)에서는 논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농경과 관련된 ‘貯水池’가 확인되어 당시의 적극적인 농경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로 생각된다. 또한 마산 진동유적(경남발전연구원 2007)과 마산 망곡리유적(우리문화재연구원 2007)은 진동만에서 함안읍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지유형도 공간평지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 유적들은 거리상으로도 매우 인접해 있으며, 특히 대규모의 지식묘군이 확인된 진동유적과도 인접해 있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취락의 입지와 교통로와의 관계를 잘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주거지, 경작지, 무덤군의 관계도 잘 보여주는 유적이라 하겠다.
 경남발전연구원, 2007, 『마산 진동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 『마산 진북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Ⅲ-1구간) 유적발굴조사 지도위원회(2차) 자료집』

- 18) ‘화전경작’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들의 가장 큰 문제가 고고학적 자료로 화전경작의 증거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작형태는 신석기시대부터 나타나는(안승모 2005:13~14) 세계사적 농경형태로 고고학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론적인 틀로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화전경작에 대해 안재호는 취락의 입지형태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山地型 聚落’형태를 화전경작의 취락형태로 보았다. 대표적인 유적은 천안 백석동유적이다.(안재호 2000)
- 19)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한 “한국 선사유적 출토 곡물자료 집성”의 부록에 기재된 ‘한반도 선사와 고대 농경관련 유적 목록’ 중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의 자료를 분석한 수량이다.
 국립중앙박물관, 2006, 『한국 선사유적 출토 곡물자료 집성』, pp451~472

된다. 재배작물 또한 전기에 비해 늘어나 10종이 된다.²⁰⁾ 밭의 대규모화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밭경작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다. 밭은 논에 비해 비교적 쉽게 경작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토양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또한 재배기술이 비교적 단순하여 쉽게 경작할 수 있다. 둘째, 생물학적 특수성으로 재배기간이 짧고 다양한 작물을 동시에 경작할 수 있다. 셋째, 인구증가 및 취락입지의 다양화 때문이다. 인구증가의 정확한 통계치는 알 수 없지만 후기에 들어서면서 주거지의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인구증가를 의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구증가와 함께 식량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취락입지의 형태는 전기와 큰 차이는 없지만 거점취락이 본격화되는 후기의 취락입지는 충적지형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는 취락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 넓은 공간과 취수, 경작활동, 교통로 등이 유리한 곳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충적지형은 지형적으로 범람과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청동기시대 사회전체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며, 방어가 불리한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적지형을 중심취락내지 거점취락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식량확보 및 잉여곡물의 생산을 위한 대규모 경작지의 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농경으로 본 청동기시대의 사회양상

청동기시대 사회는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취락(주거지)의 변화로 주거지의 형태(규모, 구조) 변화와 더불어 취락의 구조도 달라진다. 즉, 전기의 대형 장방형, 세장방형 주거지들이 후기의 소형·중형의 장방형이나 (타)원형으로 변화하며, 취락내의 주거지 수도 증가하여 취락의 규모는 전기보다 더욱더 커지고 취락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은 매우 다양해진다. 또한 취락이 입지하는 지형도 구릉과 더불어 충적지형이 중요한 거점으로 발전한다. 이들 취락은 전기에는 보기 드문 환호와 저장시설인 고상가옥, 저장혈 등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며, 무덤도 주거지와 구별되는 장소인 묘구에서 대규모 군집을 이루며 조성된다. 특히 묘구내에서 차별화된 위세품을 부장한 무덤들과 대형의 묘역시설을 갖춘 묘역시적묘가 등장하는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라 할 수 있다.²¹⁾ 또한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개인이나 집단의 안

20) 주 19)과 같이 분석하여 확인한 수량이다.

21)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국고고학회에서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이라는 공동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성과가 책으로 발간되었다.

녕을 기원하는 의례가 활발히 행해진다(이상길 2000a·2007). 사회적 안정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공업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 등 집단간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양상은 단순히 생계경제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동기사회가 복합사회(complex society)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²⁾

농경의 관점에서 청동기시대의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농경의 특징 및 양상을 이론적 틀에 맞추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농경전이의 이론적 틀과 함께 집약적 농경을 통해 사회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인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관점을 통해 검토해 본 다음 이를 ‘논경작’의 관점에서도 살펴보고 하겠다.

청동기시대는 후기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농경도 이러한 변화과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후기는 ‘송국리형 문화’가 유입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기로 재지세력의 문화와 송국리형 문화의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점이다. 송국리형 문화는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호남지역과 동남해안지역을 제외한 영남까지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그 특징으로는 송국리형으로 불리는 무덤, 주거지, 토기 등을 지표로 하고(김길식 1988:15, 김승옥 2001) 비파형동검과 옥 같은 위세품을 사용하며, 도작농경이 중심이 된다. 또한 이러한 송국리형 문화의 패턴은 발달된 농경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송국리형 문화의 농경기술에 대한 것은 저장시설을 통해 사회경제적 의미를 연구한 김장석의 논문이 주목된다. 그는 논문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와 후기의 저장시설을 분석하여 송국리단계의 저장량이 전기에 비해 20여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김장석 2008:18). 이는 송국리단계의 농경기술이 전기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잉여생산물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위계형성, 사회복합화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송국리형 문화단계에서는 농경을 통한 많은 잉여생산물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잉여생산물은 잉여의 불균등 분배 및 전용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주체에 따라 그 성격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송국리형 문화단계의 농경은 전 시기에 비해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는데, 이는 자체적인 농경기술의 발전과정 속에서 발달된 농경기술의 전래되었거나 발달된 농경기술을 가진 주민이 이주하여 농경기술의 발달을 더욱더 가속화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송국리형 문화의 비약적 발전과 확산의 바탕에는 ‘발달된 농경

한국고고학회편, 2007,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사회평론.

22) 지금까지는 주로 지식묘나 위세품인 청동기, 석검, 옥 등을 중심으로 위계화와 계층화를 설명하는 것이 많았다. 물론 이들 유구와 유물들은 복합사회를 나타내는 고고학적 자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 다만 앞서 언급했지만 청동기시대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방편으로서 생계경제 활동인 농경을 통해 청동기시대 사회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술'이 있었을 것이다. 발달된 농경기술은 '밭경작' 뿐만 아니라 '논경작'에도 적용됨으로써 식량생산 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한 잉여생산물은 어느 시기보다도 많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잉여생산물의 증가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부'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는 사회구성원의 불평등 요소나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의미로 볼 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잉여생산물의 관리와 통제는 그 주체에 따라 사회적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엘리트들에 의한 관리·통제는 권력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장석은 송국리형 문화단계의 권력 재생산을 '권력층이 공동의 농업생산을 통해 잉여를 공공재로 설정함과 동시에 이에 배타적 접근과 전용을 사회적 구별 짓기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보았다(김장석 2008:33). 여기서 '사회적 구별 짓기'란 일반인들과 사회적·정치적으로 구별하기 위해 위세품을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권력 재생산 전략 방법은 집단적 노동력이 투입되는 생산물에 대해 먼저 공동생산을 통해 잉여생산물을 집단의 공공재로 설정한 다음, 이에 대한 배타적 접근을 위세품을 통해 구현하는 방식이다. 즉, 엘리트들은 위세품을 통해 공공재에 배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한다(김장석 2008:32~33). 이러한 관점은 잉여생산물의 관리와 통제를 처음부터 부여 받는 것이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는 집단의 공공재로서 생산되고 이를 차후에 엘리트들이 위세품을 통해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형식이다. 따라서 '위세품'은 권력의 재생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상기의 이론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필자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생산단계에서의 개념에는 약간에 차이가 있다. 즉, 생산단계부터 엘리트들은 일정부분 이상의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과도한 노동력의 필요성이나 잉여생산물의 공공화에 대한 정당성 확보 이외에 발달된 농경기술이 바탕이 된 '농경기술의 독점'이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송국리형 문화단계에서 경작지의 확대나 논경작의 증가는 발달된 농경기술이 바탕이 된 것으로 청동기 제조와 더불어 당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첨단 농경기술을 독점한 개인이나 집단은 사회적·정치적으로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었을 것이다.²³⁾ 또한 첨단 농경기술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경작활동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첨단 농경기술의 제공)을 하였을 것으로,²⁴⁾ 처음부터 경작물에 대한 일

23)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청동기와 같은 위세품을 소유한 개인이나 집단의 경우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즉, 첨단 농경기술도 위세품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첨단 농경기술의 제공 중 한 가지로 '다작물재배'가 있다. 다작물재배는 다양한 작물종류를 재배하는 것으로 다양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식량확보 차원에서 보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일 년 내내 농사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안정적 식량확보가 가

정한 권리가 있었을 것이다.²⁵⁾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첨단 농경기술을 가진 엘리트들은 잉여생산물에 대해 배타적 접근과 권리행사는 일정부분 보장된 권한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농경기술을 독점한 엘리트들은 보장된 권한으로 잉여생산물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사회구성원과 구별 짓는 위세품을 구입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과정으로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송국리형 문화단계의 농경은 엘리트에 의해 잉여생산물이 관리·통제되는 ‘하향식(top-down)’ 관점으로 여겨진다. 이에 반해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은 주로 자급자족의 형태로 엘리트에 의한 관리·통제보다는 ‘상향식(bottom-up)’ 관점으로 일반 주민들에 의해 지역적으로 조직화하고 개별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잉여생산물의 관리와 통제가 엘리트들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잉여생산물의 저장²⁶⁾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송국리형 문화의 확산과정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빠른 속도로 전개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취락의 입지유형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대부분의 송국리형 취락이 강의 지류나 해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경작지의 확보와 더불어 교통로의 확보도 취락입지 선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 같다. 따라서 교통망을 갖춘 취락 간에는 일정한 네트워크가 설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수공업 생산품의 유통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청동기, 토기, 석기, 옥 등 다양한 물품들의 유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중 위세품의 유통은 취락간의 분업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대평리유적이 그 좋은 예이다(Ko Min jung·Maart T Bale 2007, 庄田愼矢 2007).

필자는 이러한 취락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농경을 통한 잉여생산물의 생산과 유통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취락간에 교통망을 통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수공업 생산품의 유통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정황으로 볼 때 취락간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내지는 적어도 교역대상이 되는 관계라 여겨진다. 따라서 취락간의 사회적 분화양상은 다르지만 다양한 생산품을 통한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즉, 거점취락내지 중심취락과 주변취락간의 교류나 주변취

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多作物農耕體系(multiple-cropping system)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집단적 노동력을 관리하는 구성원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리집단(governing body)의 존재는 복합사회(complex society)의 계층화를 시사한다(이경아 2002:448).

25) 농경에 있어서 발달된 농경기술의 제공은 다작물재배 및 작물의 효율적 관리, 수확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일정한 대가(對價)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6) 송국리형 문화단계 잉여생산물의 저장관계는 손준호(2004)와 김장석(2008)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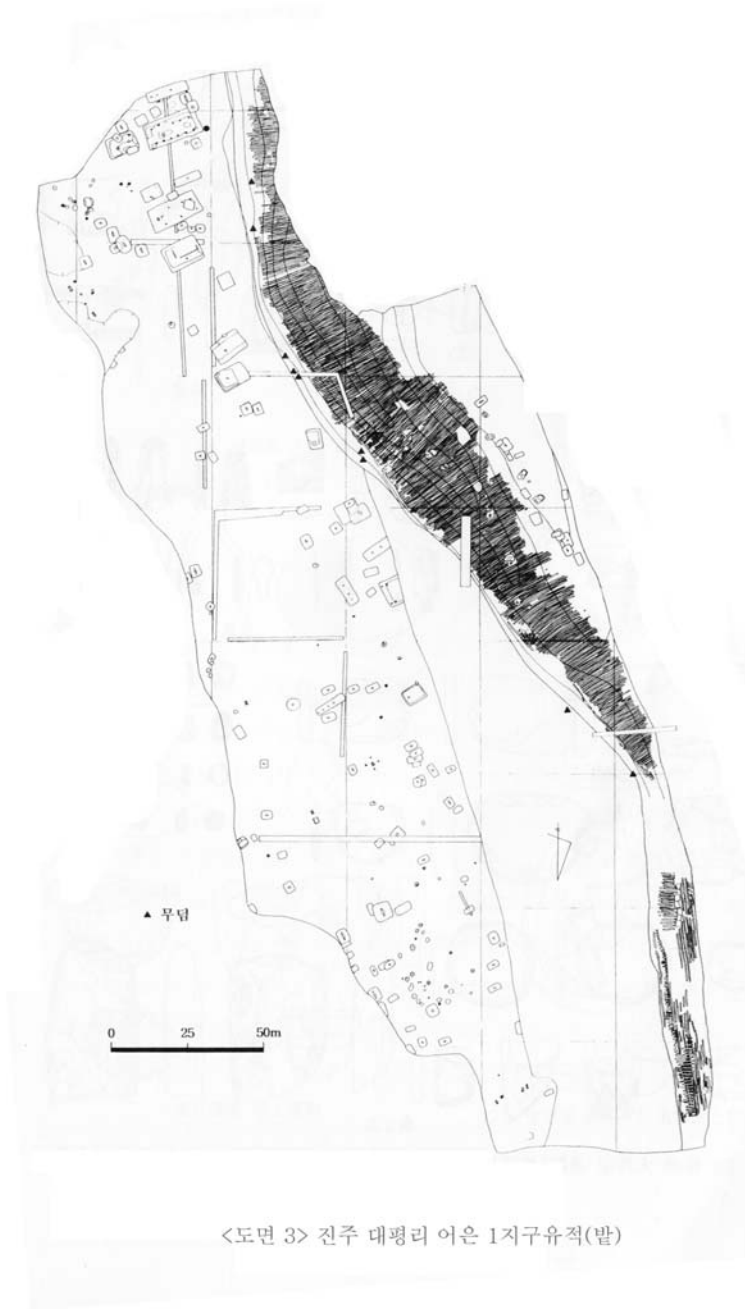
락간의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양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중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취락과 위세품을 생산하는 취락은 다른 취락에 비해 높은 기술력과 부를 바탕으로 우위적 지위를 가지고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잉여생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수공업 생산품에 비해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지만, 대규모 경작지나 저장시설, 곡물유체 분석 등을 통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나 농경관련 유구의 조사가 증가하고, 곡물유체 분석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를 통한 잉여생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²⁷⁾

IV. 맺음말

이 글은 청동기시대의 사회를 생계경제의 관점인 농경을 통해 살펴본 것으로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사회를 바라본 관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연구가 무덤이나 위세품 위주로 정리된 것이 많아 청동기사회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약간 치우친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농경을 통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청동기시대의 사회상을 밝혀낸 것은 아니다. 다만 청동기사회가 가지는 특징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농경을 통해 청동기시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독점적 농경기술’이며, 둘째는 ‘잉여생산물’의 생산과 유통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문화주체인 ‘송국리형 문화단계’에 적용되는 것이다. 즉, 전기에 비해 발달된 농경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잉여생산물 만들어내고, 이를 취락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는 농경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엘리트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잉여생산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약적 농경체계에서 ‘하향식(top-down)’ 관점으로 정의될 수 있다. ‘독점적 농경기술’은 농경 자체를 위계화 계층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동기시대 사회는 복잡적사회로의 전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7) 취락간에 잉여생산물의 생산과 유통이 행해지 고고학적 증거는 단편적으로는 경작지가 확인되지 않은 취락에서 곡물유체가 확인되거나, 또한 경작지가 있더라도 그 경작지에서 채배되지 않은 곡물이 검출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취락의 규모에 비해 경작지의 범위가 넓어 잉여생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생계경제 구조를 가진 것도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들이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며, 보다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통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Ko Min jung-Maart T Bale, 2007, 「Specialized Craft Production in the Middle Mumun Pottery Period of South-Central Korea」, 『아시아의 지역문화와 문화교류』, 전남대학교 출판부.
- 곽종철, 2001, 「우리나라 선사~고대 논밭 유구」, 『한국 농경문화의 형성』(제25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 金吉植, 1988, 「夫餘 松菊里 無文土器時代墓」, 『考古學誌』第9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김도현, 2003, 「선사·고대 논 의 관개시설에 대한 검토」, 『호남고고학보』18, 호남고고학회.
- _____, 2006, 「선사·고대의 경작유구에 대한 검토」, 『석헌정정원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 金炳燮, 2003, 「韓國의 古代 밭遺構에 대한 檢討」, 『古文化』62, 韓國大學博物館協會.
- 金承玉, 2001, 「錦江流域 松菊里型 墓制의 研究-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제45집, 한국고고학회.
- 김응모, 2006, 『한국어 농업어휘 낱말밭 I-겸업·경작·논밭·담배·인삼·방적농업』, 박이정.
- 김장석,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한국고고학보』제67집, 한국고고학회.
- 孫峻鎬, 2004, 「錦江流域 松菊里文化의 群集 貯藏孔 研究」, 『科技考古研究』10號, 아주대학교박물관.
- 신숙정, 2001,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생업경제-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시론」, 『韓國上古史學報』第35號,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02,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사짓기에 대한 이해」, 『東方學志』115, 연세대학교학연구소.
- 안승모, 1999, 『아시아 재배벼의 起源과 分化』, 학연문화사.
- _____, 2005, 「韓國 南部地方 新石器時代 農耕 研究의 現狀과 課題」, 『韓·日新石器의 農耕問題』第6回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韓國新石器研究會·九州 繩文研究會.
- 윤호필·고민정, 2006, 「밭유구 조사법 및 분석방법」, 『야외고고학』창간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이경아, 1998, 「古民族植物學의 研究方向과 韓國에서의 展望」, 『嶺南考古學』23,

- 嶺南考古學會.
- 이경아-Crawford, G.W., 2002, 「옥방1, 9지구 출토 식물유체 분석보고」, 『晉州 大平玉房1·9地區 無文土器時代 集落(本文·圖面)』, (社)慶南考古學研究所.
- _____, 2005, 「植物遺體에 基礎한 新石器時代 ‘農耕’에 대한 觀點의 再檢討」, 『韓·日新石器의 農耕問題』 第6回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韓國新石器研究會·九州 繩文研究會.
- 李相吉, 2000a, 「青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_____, 2000b, 「農耕儀禮」, 『韓國 古代의 稻作文化』(국립중앙박물관 학술심포지움 발표요지, 국립중앙박물관).
- _____, 2002a, 「남부지방 초기농경의 현단계」, 『韓日 初期農耕 比較研究』, 大阪市學藝員等共同研究 韓半島綜合學術調查團.
- _____, 2002b, 「南江流域의 先史農耕과 聚落」, 『진주남강유적과 고대일본』, 신서원.
- _____, 2007, 「祭祀를 통해본 勸力の 發生」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사회평론.
- 이준정, 2001, 「수렵·채집 경제에서 농경으로의 轉移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嶺南考古學』 28, 嶺南考古學會.
- 李漢祥, 2006, 「青銅器時代의 灌溉施設과 安東 苧田里遺蹟」, 『한·중·일 고대 수리시설 비교 연구』.
- 庄田愼矢, 2007, 「南韓 青銅器時代의 生産活動과 社會」忠南大學校大學院 考古學科 考古學專攻 博士學位論文.
- 채제천·박순직·강병화·김석현, 2006, 『재배학원론』, 鄉文社.
- 키스 월킨스·크리스 스티븐스(안승모·안덕임 역), 2007, 『환경고고학』, 학연문화사.
- 국립중앙박물관, 2006, 『한국 선사유적 출토 곡물자료 집성』.
- スチュアートヘンリ, 1986, 「農耕文化出現の研究史」, 『世界の農耕起源』, 雄山閣版.
- Chambers, Robert, 1980, Basic Concepts in the Organization of Irrigation. In Irrigation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in Asia, edited by W. E. Coward Jr, pp.28-50.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 Janusek, John W. and Alan L. Kolata, 2004, Top-down or bottom-up: Rural Settlement and Raised Field Agriculture in the Lake Titicaca Basin, Boliva.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3:404-430.
- Scarborough, Vernon L, 1991, Water Management Adaptations in Nonindustrial

Complex Societies: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olume3, edited by M. B. Schiffer, pp.101-154.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 * 농경관련 유적, 유구, 식물유체에 대한 집성은 최근의 연구 성과가 포함된 집성표가 다른 논저에 많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지면상 생략한다. 관련목록은 상기의 참고문헌들을 참조하기 바란다.